

매체분석을 통해 본 노라노 패션과 한국 패션 고찰 (2)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

박 신 미*

국립안동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디자이너 노라노 소장 자료와 연구자 수집 노라노 관련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 패션과 한국 여성 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의 지면 제한으로 2편으로 나누어 연구를 구성한다. 2016년 진행된 연구 (1)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노라노 영화의상을 분석하여 탈전통화기의 트렌드를 고찰하였다. 연구 (1)의 결과, 노라노는 최지희를 팜프파탈의 여신으로, 엄앵란을 한국의 오드리 헵번으로 만드는 등 여배우들의 스타일을 통해 국외의 트렌드를 국내에 전파시켰다. 당시 여배우들의 스타일은 20세기 중반 한국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였으며 한국패션의 서구화에 일조하였다. 본고는 연결논문의 두 번째 논문으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노라노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검증하고 한국 여성 패션 현대화의 주요 사건들을 매체자료에 근거해 추출한다. 본 연구는 노라노 소장 자료, 연구자 수집 자료, 신문박물관 소장 자료 총 159편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라노 작품이 미국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나, 매체자료 분석 결과 노라노는 미국 패션과 프랑스 패션 모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검증한 결과 노라노의 1963년 미우판백화점 패션쇼와 1964년 화신백화점 패션쇼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최초의 디자이너 기성복 패션쇼는 제10회 노라노 패션쇼인 1963년 11월 1일 오후 2시 위커힐 크로바 클럽에서 패션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노라노의 첫 양장점인 신당동 ‘노라노의 집’의 정식 오픈 시기는 1950년이며, 실제 디자인 시작 시기는 유학 직후인 1949년 후반이었다.

주제어 : 한국 근·현대 패션사, 노라노, 탈전통성,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20세기 중·후반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9281).

*교신저자: 박신미, fashion@anu.ac.kr

접수일: 2017년 4월 1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8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에 접어들면서 제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들 중 생존해 있는 디자이너 노라노(노명자)에 관한 연구(Hahn, 2012; Park, 2012; Park, 2014a; Park, 2014b)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자서전, 인터뷰, 구술채록 등 디자이너의 개인적 견해가 반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기초 연구가 패션사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내고 오류를 검증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근거가 명확한 매체자료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추가적으로 밝혀진 패션사적 사실을 추출하려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디자이너 노라노 소장 자료와 연구자 수집 노라노 관련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 패션과 한국 여성 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고찰하는데 있다. 본고는 연구 논문 지면의 제한으로 영화의상 분석과 사적 자료 분석으로 나누어 2편의 연구 논문을 개진한다. 선행연구(Park, 2016)인 연구 (1)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노라노 영화의상을 분석하여 탈전통화기의 트렌드를 고찰하였고, 연구 (2)인 본고에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노라노 관련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검증하고 한국 여성 패션 현대화의 주요 사건들을 매체 자료에 근거해 추출하려 한다. 연구 (2)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관련 인쇄매체 자료 분석결과 추출된 패션 트렌드는 어떠한 특성

을 지니고 있는가이다. 둘째 선행연구와 다르게 밝혀진 패션사적 사건과 새롭게 밝혀진 패션사적 사실은 무엇인가이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이며, 노라노와 실시한 3회의 자료 검증 면담이 포함된다. 연구는 노라노 자서전 및 전시 홍보 등의 홍보자료를 제외한 신문자료, 대한뉴스, 한국영상자료원, 그리고 2013년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문박물관에서 개최된 『노라노: 자료로 보는 노라노 발(發) 기성복 패션의 역사 기획전』 자료를 연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노라노 소장 신문 자료의 경우는 노라노가 신문을 스크랩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사만을 잘라내어 페이지 번호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기사 내용 전체가 보존되어있고 년도와 날짜가 모두 표기된 것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이외의 노라노 소장 자료들 중 기사 전문이 남아있고 기사의 년도가 확인되나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3건(실크 對美輸出길 연 노라노 女史 [Mrs. Nora Noh exported silk to USA], 1974; 올봄, 주니어·모드 [The spring, junior fashion], 1974; 洋裝界의 세대교체: 노라노와 30세 웬디노 [Western women's wear call for a shift in generations: Nora Noh and 30 years old Wendy Noh], 1979) 그리고 년도는 명확하나 매체가 기재되지 않는 3건(『뉴·모드』로 『코라지』調 [『The new fashion trend』 『Courrèges』], 1966; 「파리」의 既成服展 [Ready-to-wear clothes exhibition in 「Paris」], 1973; 海外販路 넓히는 한국 여성 기성복 [Korean women's ready-to-wear fashion to expand overseas], 1973)은 동일 주제의 기사가 다른 신문 매체 자료에서 확인되어 해당 기사의 내용을 연구 자료에 포함한다. 연구는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문헌의 경우는 노라노와의 면담(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May 26, 2014; November 29, 2014; March 27, 2017)을 통해 내용을 추가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추가 자료를 추출한다. 본고에서는 매체 자료의 주요 단어

표기법은 간접 인용 시에도 원문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표와 참고문헌 작성 시에는 제목, 주요 단어 표기법, 그리고 띄어쓰기를 모두 원문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II. 노라노 관련 매체 자료 분석 현황

매체자료는 인쇄매체자료 248점과 영상매체 40편이 추출되었다. 인쇄매체 자료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가 소장한 패션기사 150개 중 개인사와 관련된 자료와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자료 79개를 제외한 71개와 연구자가 신문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88개의 기사 총 159개를 본고에서 분석하였다. 이중 노라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05개의 기사는 1950년대 23개, 1960년대 33개, 1970년대 31개, 1980년대 10개, 1990년대 8개로 분석되었다. 본고에서는 연구논문의 지면 관계상 신문박물관과 연구자 추가 수집 국내 자료 일부만을 상세 내용 분석표로 제시하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950년대 자료는 노라노가 『조선일보』에 직접 기고한 기사와 노라노의 패션쇼 관련 기사가 주류를 이룬다. 노라노는 1956년 파리를 방문해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hristobal Balenciaga), 그리고 니나 리치(Nina Ricci)의 패션 컬렉션을 관람하고 『VOUGE』, 『ELLE』 등의 패션 잡지와 패션 트렌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Park, 2014a). 기사는 노라노가 파리 방문 시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패션의 경향을 정리한 연재 기고문으로 패션 디자이너, 패션사, 아이템, 컬러, 소재, 실루엣, 패션쇼의 주제, 포즈, 메이크업, 스타일까지 당시 프랑스 패션의 경향을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쇼인 제1회 노라노 패션쇼 이후

패션쇼 관련 기사가 주요 기사가 되었다. 1960년대는 패션쇼 소식과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유행 아이템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기성복 시장 출현에 관한 기사가 나타났다. 기사에는 패션쇼, 패션전시, 패션 디자이너, 유행 트렌드, 이슈, 컬러, 소재, 패션 산업, 기성복 시장 관련 자료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1970년대는 자선 패션쇼와 바자회, 노라노 패션의 스타일과 트렌드에 관한 기사가 수집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한방직협회와 대한잡사협회와의 협업, 그리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지원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1980년대는 노라노가 미국에서 활동한 시기로 노라노 관련 국내 기사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실용적으로 변화하는 패션쇼의 형식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기사가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는 한국 근·현대 패션사에서 노라노의 기여 점과 노라노 패션의 역사 그리고 패션 산업의 변화에 관한 기사가 수집되었다.

III. 매체자료 분석을 통해 본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패션

1. 1950년대: 디자이너 패션쇼 개최로 인한 해외 트렌드 유입과 스타일 절충

1957년 6월 9일 개최된 ‘제2회 노라노 하계 패션쇼’에서 노라노는 원피스를 주력 상품으로 50여벌의 디자인을 선보였다(새로운 스타일 [The new style], 1957). 노라노는 패션쇼에 소개된 드레스가 “국제적인 「파티」의 「테크니크산」이라 하여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고유한 민족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새로운 여름철 衣裳: 노라노 夏季 팻손쇼 盛況 [New summer clothes: Prosperity of Nora Noh S/S fashion show], 1957, p. 4). 또한 1957

Table 1. 신문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 수집 인쇄매체 주요 자료 내용 및 분석.

일시	매체명	기사제목	내용	분석
1957 5. 12.	『경향신문』	「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	- 색: 날씨에 따라 다른 컬러 선택 - 소재: 장소와 직업에 맞는 소재 선택 - 형태: 스포티형과 스위트형으로 구분	컬러, 소재, 스타일
1957 6. 13.	『조선일보』	새로운 여름철 衣裳	- 노라노 夏季 패션쇼 盛況, 「안드레」씨의 이브닝드레스 소식 - 노라노 패션쇼의 콘셉트는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파리의 이미지를 담아냄 - 세부 콘셉트: 「꽃망울」, 「월광의 꽃」, 「상제리제」, 「샤넬 · 넘버 · 화이트」 등	패션디자이너, 패션쇼, 테마
1957 6. 16.	『경향신문』	반도호텔에서 개최된 2차 노라노 패션쇼	- 노라노 2회 패션쇼 소식 - 패션쇼 음악: 1부는 빠른 소나타 형식, 2부는 느린 「歌謠」 형식 또는 「變奏曲」 형식	패션디자이너, 패션쇼
1957 8. 22.	『조선일보』	洋裝과 속옷	- 양장의 아름다운 라인은 속옷을 잘 갖추어 입는 것에 의해 결정됨 - 타이트 한 의상을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르셋과 같은 밀착된 속옷이 필수	패션사, 아이템, 스타일
1957 8. 30.	『조선일보』	구두와 액세서리	- 패션액세서리는 장식이 아님 - 구두와 액세서리는 착장 전체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임 - 「힐」은 되도록 핸드백과 같이 매치	패션사, 아이템, 스타일
1957 9. 5.	『조선일보』	衣裳과 香水	- 향수의 역사와 종류 - 지나치게 자극적인 향수는 교양을 의심하게 되는 척도이므로 적당한 향을 사용해야 함	패션사, 에터켓, 아이템
1957 9. 12.	『조선일보』	洋裝과 「포-즈」	- 양장에서 스타일의 좋고 나쁨은 세련된 포즈가 결정함 - 걸음걸이와 자세가 포즈에서는 중요함	아이템, 스타일, 포즈
1957 9. 26.	『조선일보』	洋裝과 線	- 양장 착용에 있어서의 실루엣의 중요성 - 체형에 맞는 선의 양장 착용이 중요하며 선은 형태뿐만 아니라 컬러와도 관계가 있음	컬러, 아이템, 라인, 실루엣, 스타일
1957 10. 3.	『조선일보』	流行에 대하여	- 유행의 속성과 트렌드 제시 - 트렌드를 주도하는 프랑스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역사 및 스타일 특징	패션사, 패션디자이너, 트렌드
1957 10. 18.	『조선일보』	가슴과 「스 쓰」	- 가을 프랑스 패션의 트렌드는 「스 쓰」 -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 혹은 여기에 코트를 갖추어 입는 것이 정장의 정석	아이템, 스타일, 트렌드
1957 10. 24.	『조선일보』	毛 皮	- 보석뿐만 아니라 모피 역시 세계적으로 장식품으로 여겨짐 - 모피의 종류와 특징 소개	아이템, 재료, 트렌드, 스타일
1957 10. 31.	『조선일보』	넥타이와 스카프	- 넥타이의 역사 - 넥타이와 스카프의 활용법 - 넥타이: 남성복에서 유일하게 컬러 포인트를 주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 - 스카프: 카라의 변화와 벨트로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	패션사, 아이템, 스타일
1957 11. 7.	『조선일보』	「색과 실루엣」	- 스타일에서 색과 실루엣의 중요성 - 색과 실루엣의 관계를 사례를 들어 설명	컬러, 스타일, 실루엣
1957 11. 14.	『조선일보』	후렐바스의美	- 풍만한 가슴이 아닌 평면적인 가슴이 세련된 스타일	스타일
1957 11. 28.	『조선일보』	새로운 메이크	- 현대의 미인은 메이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 - 오드리 헵번은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례	메이크업, 스타일
1957 12. 12.	『조선일보』	마네킹의예술성	- 패션계에서 영화배우와 함께 잡지에 소개되는 마네킹이 미인의 척도로 여겨짐	스타일, 트렌드

일시	매체명	기사제목	내용	분석
1959 4. 4.	『경향신문』	노라노 핏쑈·쑈: 국산지 신작으로 성황	- 1959년 3월 30일, 3시 30분pm, 반도호텔 「다이나시티 · 룸」, - 1부: 외출복과 평상복 36점 - 2부: 「장미의 온도」 등 「카텔」 「디너」 이브닝 드레스 라인 53점	패션디자이너, 패션쇼, 소재, 테마
1960 1. 17.	『동아일보』	양장: 실용복 스텝스	- 바지 착용의 역사 - 오드리 헵번의 사브리나 팬츠 - 바지와 스포티한 재킷 착장, 바지와 실크 블라우스 착장, 주니어들의 실내 슬랙스 스타일	패션사, 아이템, 트렌드, 스타일
1960 3. 10.	『동아일보』	家庭: 봄철의 양장	- 봄철 유행 양장 스타일 제안 - 원피스에 샤넬 재킷 착장(코오드로이와 울저지의 조화) - 투피스 느낌을 살린 체크 원피스(로우웨이트, 오버컬러)	아이템, 스타일, 소재
1960 6. 18.	『동아일보』	家庭: 색깔, 감, 디자인	- 컬러: 장소에 따라 선택 - 감: 간결한 스트라이프, 체크 - 디자인: 스포티한 카라, 좁은 카라, 튜올립 슬리브	컬러, 소재, 패션디자이너
1960 8. 20.	『동아일보』	양장: 『카라』 없는 초가을 『원피스』	- 초 가을 스타일 - 4부 혹은 7부 슬리브, 노 카라, 페티코트를 입지 않는 원피스, 의상과 동일한 컬러의 가는 벨트	아이템, 스타일
1961 4. 15.	『경향신문』	洋裝店털기16회	- 4인조 여성 도둑이 명동 양장점을 16회나 절도함 - 명동 최고의 부티, 노라노	패션디자이너, 이슈
1962 4. 4.	『동아일보』	깔끔한「멋」풍겨 : 노라노 「핏쑈·쇼」	- 노라노 패션쇼 소식 - 1962년 3월 31일, 그랜드 호텔, 21점 - 생활복 30점: 제주도 트위드, 울저지 - 드레스: 양단, 공단, 우리 옷 느낌	패션디자이너, 패션쇼
1963 10. 29.	『동아일보』	두곳서 『핏쑈·쇼』11月1日-2 日	- 패션쇼 소식 - 대한복식디자이너 주최 첫 기성복 패션쇼: 1963년 11월 2일 2시 30분 pm, 미도와 5층, 70점 - 노라노 제10회 기념 패션쇼, 1963년 11월 1일 2시 pm, 위커힐 크로바 클럽, 1부 기성복(60점), 2부는 작품(30점)	패션디자이너, 패션쇼
1963 11. 5.	『경향신문』	겨울을 위한 패션·쇼: 노라노여자 10회전	- 노라노 10회 패션쇼 소식 - 주니어와 직업여성을 위한 기성복 - 침착한 색깔과 선의 조화가 특징인 작품(블루톤, 바이얼리트) - 소개된 작품은 미우만 3층과 명동 매장에서 2할 할인 판매 - 국산 원단만을 사용(제주도 수직 트위드, 울저지, 양단, 우단 등)	컬러, 소재, 패션디자이너, 패션쇼
1963 12. 18.	『동아일보』	「레다·메이드」를 시작: 歡迎받았으나 成敗는 아직	- 노라노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의 전환 - 보고 마음대로 입어보는 옷	패션디자이너, 패션산업
1964 6. 23.	『동아일보』	『슈프트』가 눈끌어 『노라노』서 「바자」	- 50여점이 선보인 6월 18일부터 개최된 노라노 바자회 소개 - 포플린, 메리야스, 카튼, 데님 - 슈프트 스타일 제안	이벤트, 소재, 스타일
1964 10. 29.	『동아일보』	보기에도 따뜻한 『자켓 · 수츠』	- 『노라노의 집 · 패쑈 · 쇼』 소식 - 1964년 10월 23일, 48점 - 기성복, 이지오다, 수출용 샘플 - 원단: 제주도 한림수직의 체크 울 - 가격: 「폴덴」: 1천 7백원 「코트」: 3천 6백원 「자켓 · 수츠」: 3천 7백원	아이템, 소재, 패션디자이너
1965 2. 25.	『동아일보』	既成服展示會	- 노라노의 집: 기성복 전시회, 1965년 2월 22일~3월 1일까지 - 회색 「후란넬」의 「샤넬 · 자켓」, 가격: 2천 3백원	패션전시, 아이템
1965 5. 30.	『조선일보』	노라노여자 첫 「패션·쇼」 하와이의 「로이얼·호텔」서 51점전시	- 『노라노 한국 하와이 1965』 패션쇼 - 1965년 5월 22일, 로이얼 호텔 리젠스 홀, 51점 - 「하우스 오브 노라노」매장: 하와이 와이키키의 카피오라니, 아라모아나 빌딩 1013호	패션쇼, 아이템

일시	매체명	기사제목	내용	분석
1965 6. 9.	『경향신문』	太平洋 오가는 노라노 洋裝	- 『노라노 한국 하와이 1965』 패션쇼 - 제주도 한림수직의 울, 한국 실크 - 롱, 라운징, 캣테일, 티 등의 드레스 라인이 주류	소재, 스타일, 산업
1967 4. 13.	『동아일보』	<나이에 관계없이 젊게 입을 수 있는 실크원피스기성복 (노라노의 집에서)>	- 나이에 관계없이 젊게 입을 수 있는 실크 원피스 기성복	소재, 아이템
1969 12. 25.	『매일경제』	나의 단골집 明洞노라노	- 동양 TV 텔런트 최영희 - 의상은 제3의 피부	패션디자이너, 스타일
1971 3. 3.	『동아일보』	세계의 庶民, 디자이너	- 화려한 직업인 디자이너 세계의 이해 필요	세계 트렌드
1971 6. 28.	『동아일보』	자선패션바자 창작극기금모집	- 극단 「산울림」과 디자이너 노라노의 자선패션바자 소식, - 1971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2시~4시pm), 코스모스 백화점 3층 - 모델: 사미자, 손숙, 윤여정 등	패션이벤트
1974 4. 13.	『매일경제』	스포츠한차림유행	- 디자이너들이 말하는 주니어 의상 - 노라노: 피피의상, 블루진 긍정적 - 이성우: 화려한 색상의 직물을 선택해 귀여움 표출	소재, 아이템, 스타일
1975 1. 25.	『매일경제』	實用과 藝術性을 강조하는 노라노 女史: 샤넬과 바랑시아가가 마음의 선생	- 노라노: 실용성과 예술성이 중요 - 존경하는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 - 트렌드: 소프트 앤 빅 룩	소재, 패션디자이너, 스타일
1979 12. 21.	『동아일보』	洋裝界의 세대교체: 노라노와 30세 웬디노	- 제1세대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대교체 시작, 디자이너 브랜 드도 젊어져야 - 하우스 오브 노라노의 후계자 30세 웬디노	패션디자이너
1981 1. 10.	『동아일보』	韓國 近代文化의 뿌리: 패션쇼	- 1956년 디자이너 최초의 패션쇼인 노라노 패션쇼를 한국근 대문화사적 관점에서 소개	패션쇼
1981 10. 26.	『동아일보』	패션쇼 달라진다.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 1970년대까지 디자이너패션쇼의 문제점 - 보여주기 위한 쇼 의상이 아닌 실용적 디자인이 필요	패션디자이너, 패션쇼, 스타일
1981 11. 27.	『동아일보』	바람직한 우리의 패션: 生活環境에 맞는 옷을...	- 생활수준과 환경에 맞는 옷차림이 중요	라이프스타일, 스타일
1995 1. 4.	『섬유 경제신문』	한국패션 반세기: 마카오신사가 첨단패션 갖춘 멋쟁이	- 해방 50주년 특집: 한국패션 반세기 - 명동 50년대 중반부터 패션의 거리 - 노라노 한국 최초의 패션쇼 개최 -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신선한 충격 - 남성디자이너 앙드레김 60년대 들어 처음 등장 - 「뉴룩」상륙 계기로 70년대 실루엣 변화	패션사
1995 3. 15.	『경향신문』	패션 50년, 「노라노 패션쇼」	-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계 상황 - 고급 맞춤복 가격: 1만 2천원~1만 5천원 - 영국산 원단이 최고품으로 평가됨	패션사, 패션디자이너, 패션산업
1999 9. 6.	『경향신문』	노라노 좋은 옷 만들기 50년 제1세대 패션디자이너 ‘고급 옷’ 거품 빼는 ‘한국의 샤넬’	- 노라노 패션의 50년 역사 - 생활에 맞는 패션 문화의 중요성 - 21세기 중국시장공략계획 소개	패션디자이너, 패션산업

*기사제목은 원제목 표기와 동일하게 작성

년 6월 『경향신문』(「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 [The three elements of 「designing」], 1957)과 같은 해 12월 『조선일보』(노女史 팻손·쇼 [The fashion show of Mrs. Noh], 1957)는 노라노의 패션쇼 기사를 다루면서 디자이너들이 국산 원단을 사용하면서 디자이너들의 의상도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닐 수 있다고 전망한다. 1957년 『경향신문』(「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 [The three elements of 「designing」], 1957)에서는 ‘色の選擇, 布地の選擇, 型の選擇’이라는 디자인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날씨에 맞는 색을 선택 할 것, 사무복의 경우는 실크와 울과 같은 고급 소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또한 마지막 디자인의 요소인 형(型)은 ‘Sporty 型’과 ‘Sweet 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인의 체형과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 [The three elements of 「designing」], 1957).

『조선일보』는 1957년 8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회에 걸쳐 패션스타일과 트렌드에 대한 ‘生活美의 創造’라는 연재 기사를 내보냈는데 기사에는 일상복을 입을 때 페티코트를 입는 것은 올바른 양장의 착장법이 아니며 격식 있는 자리를 위한 카테일 드레스에 페티코트를 차려입어야 한다는 양장에서 속옷의 중요성, 세련된 스타일의 마무리와 하모니를 위한 구두와 액세서리의 역할, 의상에서 또 다른 액세서리로 여겨지는 향수의 역사와 종류, 양장을 입을 때 포즈와 선의 중요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트렌드를 움직이고 있는 디오르를 소개한 유행과 디자이너의 관계, 계절에 맞는 의상 착용법을 설명한 가을과 스스(suit), 다이아몬드와 함께 여성 허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민크, 진치라, 아스토라칸, 화이트·혹스, 코린·스키, 레오·바도, 아라스카·시루스킨, 오시롯트 라는 모피의 종류, 넥타이의 역사와 멋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넥타이와 스카프의 활용법, 디자인에서 색과 실루엣 조화의 중요성, 의상에서

편평한 가슴의 아름다움, 할리우드 메이크업 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메이크업 스타일, 광고에서 보이는 마네킹의 예술성과 의상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Noh, 1957a; Noh, 1957b; Noh, 1957c; Noh, 1957d; Noh, 1957e; Noh, 1957f; Noh, 1957g; Noh, 1957h; Noh, 1957i; Noh, 1957j; Noh, 1957k; Noh, 1957l; Noh, 1957m).

2. 1960년대: 해외 트렌드의 적극적 수용과 디자이너 기성복 시장의 형성

1962년 4월 『동아일보』(깔끔한「멋」풍겨: 노라노 「팻손·쇼」 [Simple and 「fashionable」: Nora Noh 「fashion show」], 1962)는 그랜드호텔에 400여명이 노라노의 패션쇼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프로그램」에 따라 51점의 의상이 발표되었는데 색채의 다양성과 「디자인」의 「심플」한 맛이 호화찬란하지 않은 깔끔한 멋을 풍겨주었다”고 설명한다(깔끔한「멋」풍겨: 노라노 「팻손·쇼」 [Simple and 「fashionable」: Nora Noh 「fashion show」], 1962, p. 4). 한해 뒤 10월의 『동아일보』(두곳서 「팻손·쇼」 11월1일-2일 [「Fashion shows」 in two place 1-2 november], 1963) 기사는 두 곳에서 열리는 패션쇼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첫 번째 쇼는 ‘대한복식디자이너’ 협회 주최로 11월 2일 하오 2시 30분 미도와 5층에서 기성복 ‘팻손·쇼’이고, 두 번째는 ‘노라노팻손’ 제10회 기념 ‘팻손·쇼’가 11월 1일 하오 2시 ‘위커힐·크로바·클럽’에서 열린다는 것이다(두곳서 「팻손·쇼」 11월1일-2일 [「Fashion shows」 in two place 1-2 november], 1963). 대한복식협회 패션쇼에서는 부인복, 여대생을 위한 옷, 편물, 남성복 등 70여점이, 노라노의 패션쇼에는 1부 기성복 60점과 2부 작품 30점 총 90여점이 선보였다(두곳서 「팻손·쇼」 11월1일-2일 [「Fashion shows」 in two place 1-2 november], 1963). 같은 해 11월 노라노 10회 패션쇼에 관한 『경향

신문』(겨울을 위한 패션·쇼: 노라노여사 10회전 [Fashion show for winter: 10th Nora Noh fashion show], 1963) 기사는 쇼에서 선보인 기성복은 주니어들과 직장 여성들에 호응을 얻었고, 맞춤복은 침착한 색상과 선의 조화로 품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사용옷감은 전부국산. 제주도의 수직 「트위드」와 「울저지」, 양단과 우단등...색깔은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블루톤」의 「바이얼리트」와 「핑크」, 「검정」, 「브라운」 등. 이날 보여준 작품은 미우만 3층 노라노의 집과 명洞노라노양장점에서 2할 할인으로 팔 예정이라고 한다”는 원단, 컬러, 판매계획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겨울을 위한 패션·쇼: 노라노여사 10회전 [Fashion show for winter: 10th Nora Noh fashion show], 1963, p. 5). 한 시즌 뒤의 『동아일보』(보기도 따뜻한 「자켓·수츠」 [Warm to see 「jacket·suit」], 1964) 기사에 따르면 1964년 10월 23일 패션쇼에서는 기성복과 수출용 샘플 48점이 발표되었는데 망모사를 사용한 슈트와 코트가 선보였다. 반면 1965년 『조선일보』(노라노여사 첫 「패션·쇼」: 하와이의 「로이얼·호텔」서 51점 전시 [Mrs. Nora Noh, the first 「fashion show」: 51 works exhibited at the 「Royal hotel」 in Hawaii], 1965)는 5월 22일에 개최된 노라노의 하와이 첫 해외 패션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기사는 패션쇼의 주제는 ‘노라노·韓國-하와이1965’이며 ‘하우스·오브·노라노’라는 상호로 와이키키 카피오라의 아라모아나 빌딩 1013호에 매장을 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일한 쇼의 6월 『경향신문』(太平洋 오가는 노라노 洋裝 [Traveling across the pacific Nora Noh fashion], 1965)의 기사에는 노라노가 하와이 매장을 1964년 10월 열었고 한국인 2세와 백인으로 구성된 10명의 모델을 쇼에 올렸다고 설명한다. 신문은 쇼에서 주목받은 것은 “제주도 한림수직(翰林手織)의 「울」...그리고 한국 「실크」”라고 소개한다(太平洋 오가는 노라노 洋裝 [Traveling across the pacific: Nora Noh fashion], 1965, p. 6).

1969년 『THE KOREA TIMES』(Charity Show for Troupe, 1969)에는 YMCA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자선 목화 패션쇼 기사가 소개되었다.

1960년 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기성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조사된 자료에서 1963년 12월 『동아일보』(「레디·메이드」를 시작: 歡迎받았으나 成敗는 아직 [The start of 「ready made」: Received a welcome but has not succeeded yet], 1963) ‘레디메이드를 시작: 歡迎받았으나 成敗는 아직’ 기사는 노라노가 기성복 시장에 뛰어들 것을 소개하며 옷이 고급품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맞춤이 아닌 대량 의복 생산으로의 전환이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평을 내어 놓고 있다. 기사에서 노라노는 “과거 십여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여온 우리 여성들의 복장도 생활개선을 부르짖는 오늘에 와서는 모든 여건이 일단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기성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레디·메이드」를 시작: 歡迎받았으나 成敗는 아직 [The start of 「ready made」: Received a welcome but has not succeeded yet], 1963, p. 6). 같은 신문의 1965년 기사에는 ‘노라노의 집’에서 개최된 기성복 전시회 소식이 실렸는데 기성복의 수요는 직업여성을 위한 것임이 기술되어있고 “「샤넬·자켓」이 많으며 「카튼·저지」의 「스카트」 「자켓」도 인기...<회색 「후란넬」의 샤넬·자켓 (값2천3백원) 속에 「자켓」 대신 「블라우스를입으면 훨씬 낫다보인다>”를 통해 고급 기성복 시스템이 정착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既成服展示會 [Exhibition of the ready-to-wear clothes], 1965, p. 6). 또한 1966년 『경향신문』(기성복의 보급 [Supply of the ready-to-wear clothes], 1966)에서는 기성복의 보급 현황을 기술하며 싸고 질 좋은 의상 제작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사이즈의 체계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1960년대 초반에는 파리의 스타일이 한국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한 것이 『동아일보』(양장: 실용복

스랙스 [Western women's wear: Practical slacks], 1960) 자료에 남아있다. 1960년 『동아일보』의 기사는 ‘실용복 슬랙스’라는 주제로 슬랙스가 실용적이며 슬랙스를 입고도 여성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의 사브리나 팬츠 스타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사는 직장에서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엉덩이를 덮는 풍성한 상의를 입어 예의를 지킬 것을 경고한다(양장: 실용복 스랙스 [Western women's wear: Practical slacks], 1960). 같은 신문의 3월 기사는 샤넬 재킷이 유행하고 있음을, 6월 기사에는 ‘색갈, 감,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무늬가 있는 원단, 적당한 노출과 강조된 컬러의 콘트라스트가 여름철 스타일에 활력을 준다고 제안한다(家庭: 봄철의 양장 [Home: western women's wear for spring], 1960; 家庭: 색갈, 감, 디자인 [Home: color, fabric, design], 1960). 반면 8월의 기사에는 ‘카라’ 없는 초가을 ‘원피스’ 스타일이 유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기사는 1950년대 후반의 풍성한 칼리지 원피스에 반해 1960년 스타일은 20대와 30대에 맞는 H라인 원피스가 유행할 것이라고 예견한다(양장: 『카라』 없는 초가을 『원피스』 [Western women's wear: Early autumn dress] without [collar]], 1960).

1964년 여름에는 셔츠 칼라의 스포티한 원피스와 더불어 ‘쉬프트’라는 지금의 슬리브리스 원피스가 트렌드였으며, 노라노의 1964년 6월 바자회에서는 샤넬 수트가 주력 상품이였음이 확인된다(『쉬프트』가 눈끌어 『노라노』서 『바자』 [『Shift』 catching attention in the 『bazaar』 of 『Nora Noh』], 1964). 1966년에 신문에는 디오르의 뉴욕 이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코라지 룩(Courrèges look)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는데 “『코라지』調란 ① 깨끗한 직각적 「라인」과 ② 엷되고 대담한 패색, ③ 엷되게 보이는 「영·루크」 등을 그 특징으로 꼽게된다”고 설명한다(세계의 새 流行 『코라지·라인』 [The new global trend

『Courrèges line.』, 1966; 『뉴·모드』로 『코라지』調 [『The new fashion trend』 『Courrèges』], 1966). 신문에서 설명하는 ‘코라지’는 1960년대 프랑스 패션을 젊고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를 말한다. 당시 유행했던 쿠레주의 스타일은 우주시대를 위해 제안한 미니멀 미니 원피스이다. 1967년 4월 ‘나이에관계없이 젊게 입을 수 있는 실크원피스기성복’이라는 기사는 고급 기성복 시장이 정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나이에관계없이 젊게 입을 수 있는 실크원피스기성복(노라노의 집에서)> [To wear regardless of age, ready-to-wear silk dresses(from house of Nora Noh)], 1967).

3. 1970년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디자이너 기성복의 정착

1970년 3월 『한국일보』는 1969년 9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에릭스’ 국제무역박람회에 전시되었던 우리나라 직물(織物) 소식과 더불어 소재가 아닌 완성품의 해외 현지 진출이 인건비와 기술이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사는 “감 좋아도 빛깔 센스부족, 당분간 小規模의 輸出 정도”만이 가능하다고 디자인력의 중요성을 필역하고 있다(展望 어두운 女性服輸出 [Exporting opaque women's wear], 1970). 1973년 주요일간지(『파리』의 既成服「쇼」에 참가하는 노라·노 씨 [Mrs. Nora Noh attend the ready-to-wear clothes 「exhibition」 in 「Paris」], 1973; 海外販路 넓히는 한국 여성 기성복 [Korean women's ready-to-wear fashion to expand overseas], 1973; 여성 既成服展 [The exhibition of women's ready-to-wear clothes], 1973; 고급 既成服 [High quality ready-to-wear clothes], 1973; 세계를 휩쓰는 實用主義, 모드는 個性주의로 [Pragmatism that sweeps the world but the trend of fashion is individuality], 1973)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지원으로 파리 패션박람회 전시에 출품하는 노라노와 한

국 패션디자이너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파리」의 既成服「쇼」에 참가하는 노라·노 씨 [Mrs. Nora Noh attend the ready-to-wear clothes 「exhibition」 in 「Paris」], 1973)는 1973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파리 ‘포르·트·베르사유(Porte de Versaille)’ 1974년 S/S 기성복 박람회에서 이미 4월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는 노라노는 10벌을 늘린 70벌을 선보여 250벌을, 한국관에서 함께 작품을 출품한 강귀희(姜貴姬, 제1회 미스코리아)씨가 100여벌 1만 8천 달러 상당을 수수 받았으며, 개별 디자인은 최소 \$50에서 최고 \$80의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기록한다. 해당 박람회는 한국 디자이너들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세 번째 참가한 박람회이다. 기사는 이 옷이 소매로 판매될 때는 최소 \$180에서 최고 \$300달러로 판매되므로 기성복의 대중화라는 취지에서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한다(「파리」의 既成服「쇼」에 참가하는 노라·노 씨 [Mrs. Nora Noh attend the ready-to-wear clothes 「exhibition」 in 「Paris」], 1973).

1974년 10월 『Chicago Daily News』(Pure Silk for Spring-Price is Right, 1974)는 ‘Pure Silk for Spring-Price is Right’이라는 기사를 통해 노라노가 한국정부와 실크협회의 후원으로 패션쇼를 열었고, 뉴욕과 파리의 디자이너 작품에 버금가는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며 삭스 피프스 에비뉴(Sacks Fifth Avenue) 백화점 등 미국 바이어들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사로잡았다고 적고 있다. 또한 1974년 11월 『Women’s Wear Daily』(The Fabrics: THE REAL THING, 1974)는 ‘THE REAL THING’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력으로 일본 실크 대신 한국 실크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미국 시장에 정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사는 특히 한국 실크는 야드(yard)당 \$2에서 \$16달러라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정부차원에서 가벼운 자카드와 사틴, 쉬폰 그리고 다양한 패턴을 프린트한 디자인

을 개발하여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과 인테리어 부문까지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통성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전통을 서양의 취향에 맞게 재해석한 프린트 패턴이 시장 진입의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The Fabrics: THE REAL THING, 1974). 같은 해 『동아일보』(실크 對美輸出길 연 노라·노 女史 [Mrs. Nora Noh exported silk to USA], 1974) 기사는 노라노의 작품이 쇼가 끝난 후 디오르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제품을 취급하는 ‘헬리·벤들’에서 수수 주문이 들어왔고 총 4천 4백 76만원 상당의 수출 계약이 수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여성복 최고 제작자 업체인 호스톤, 오스카, 빌·브레스, 존·앤토니에서 구입해 한국 실크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실크 對美輸出길 연 노라·노 女史 [Mrs. Nora Noh exported silk to USA], 1974). 이외에도 노라노의 일본 진출 소식은 『ナイガイスポーツ』(韓国のディオールモードの女王日本を語る [Dior in Korea-queen of the mode, speak Japan], 1972)에 실렸는데 신문은 노라노를 한국의 디오르로 소개하고 있다. 1977년 2월 『貿易通信』(鮮京서도 美에 실크製品 [Silk products exported to USA by Seonkyung], 1977)에서는 기업들의 실크 수출계획이 기술되어 있는데 선경(鮮京)은 1976년 150만\$이었던 수출 목표를 1977년 600만\$로 확대하고 있으며 노라노양장점과 제휴하여 150만\$에 해당하는 여성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貿易通信』은 1976년 “5천着으로 출발한 人氣 디자이너 다이애나·워의 제휴가 히트. 올해부터는 1만着으로 확대판매를 시작했는데 구미(歐美) 시장의 600만\$중 다이애나 상표만으로 250만\$ 내지 300만\$를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술한다(鮮京서도 美에 실크製品 [Silk products exported to USA by Seonkyung], 1977). 1977년 3월 『중앙일보』(探索한창 하이패션 輸出: 保税加工탈피, 「디자인」

搜出로 高價化 [Searching high fashion export: To get out of the bonding process, to approach advanced 「design」 export], 1977)는 “현재 구미의 고급상점에서 한국 상표를 붙여 판매되고 있는 기성복은 노라노씨와 朴允貞씨의 「디자인」 작품과 「카렌林」씨 등이 소규모로 주문을 받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큰 기성복 회사들이 국내 시장과 아울러 외국에 샘플을 보내 주문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당시 업체들은 디자이너를 고용해 전략적으로 수출상품을 개발하였다.

1971년 2월 『중앙일보』(大衆에 定着한 歐美 「패션」: 「노라·노女史」가 말하는 파리의 流行 [European 「fashion」 settled in the public: the trend of parisian fashion spoken by 「Nora Noh」], 1971)의 기사에는 파리의 트렌드가 기록되어있다. “심플한미디에벨트정도, 쇼트팬츠는 10대들에게 인기, 성장풍조 없어지고 다양화”가 특징이며 파리의 거리에는 “「티·샤쓰」 「미나·스커트」 「부츠」의 「스타일」. 앞단추를 원하는 기장부터 풀어 「쇼트·팬츠」와 「양상블」을 이룬”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고 적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봄 트렌드임을 예견한다(大衆에 定着한 歐美 「패션」: 「노라·노女史」가 말하는 파리의 流行 [European 「fashion」 settled in the public: the trend of parisian fashion spoken by 「Nora Noh」], 1971). 1974년 2월 『동아일보』(經濟的이면서도 깔끔한 옷차림, 마춤옷보다 實用的이고 견고한 既成服선택 싫증나지않는 平凡한 옷으로 多樣性살려야 [Economical simple clothes, choosing practical and solid ready-to-wear clothes, over custom-made clothes, attracting the public with clothing that does not get old], 1974)는 ‘마춤옷보다 實用的이고 견고한 既成服선택 싫증나지 않는 平凡한 옷으로 多樣性살려야’라는 기사내용을 통해 고교를 졸업한 여성들에게 젊은이의 생동감을 살려 블라우스에 실용적인 진 착장을 입을 것을 제

안한다. 반면 같은 해 4월 『매일경제』(스포티한차림유행 [The trend is a sporty fashion], 1974)에서는 ‘블루진바지에 T셔츠 등 主潮로 服地는 저지보다 麻종류관칠 듯’이라는 전망을 내어 놓으며 아무렇게 입으면서도 멋을 낼 수 있는 스포티 스타일이 트렌드임을 밝힌다. 신문은 ‘영·레이디코너’라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점들이 극소수에 불과해 향후 이 시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주니어들의 스타일은 기성세대들과 달리 신선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스포티한차림유행 [The trend is a sporty fashion], 1974). 디자이너 이성우는 기사에서 주니어들은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의 직물을 선택 귀엽게 만들어 입으라’고 권고한다(스포티한차림유행 [The trend is a sporty fashion], 1974). 같은 해 『조선일보』(올봄, 주니어·모드 [The spring, junior fashion], 1974)는 노라노가 올봄 주니어 모드에 맞추어 발빠르게 “신세계백화점 2층에 「주니어」를 위한 「코너」를 신설하고 그 「오프닝·쇼」를 15일에 가졌다”는 소식을 전한다. 1976년 2월 『동아일보』(올봄의 의상: 입던 옷에 새素材결들여... [The clothes for spring: Putting new materials on current clothes...], 1976)는 레이어드 패션과 남녀 구분 없이 입는 유니섹스룩을, 6월 『한국일보』(올여름 비옷모드: 통넓은 소매 늘어진어깨 [This summer's raincoat fashion: Wide sleeves, loose shoulders], 1976)는 레인코트의 유행을 전망한다. 『한국일보』는 “면이나 폴리에스터 천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성한 TC 원단에 고무 및 비닐을 코팅하여 방수 처리한 옷감으로 얇고 가벼워 습한 장마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 색상과 모양은 푸른색, 은빛회색, 베이지, 녹색등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중감색계열의 트렌치코트형이나 포개서 입는 랩어라운드형”이 트렌드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올여름 비옷모드: 통넓은 소매 늘어진어깨 [This summer's raincoat fashion: Wide sleeves, loose shoulders], 1976). 1977년 3월(새봄의

「블라우스」[New spring's 「blouse」], 1977) 기사는 봄에 유행할 블라우스의 다양한 착장법과 로랑의 스탠드칼라 블라우스와 전통적인 ‘클래식·샤스·블라우스’의 유행을 설명한다. 같은 신문의 또 다른 기사는 하이패션의 수출에 있어 보세공장을 탈피해 디자인력을 키우는 것이 수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전망한다(探索한창 하이패션 輸出: 保稅加工탈피, 「디자인」 搜出로 高價化 [Searching high fashion export: To get out of the bonding process, to approach advanced 「design」 export], 1977). 같은 해 11월 『중앙일보』(實用的인 「코트」 고르기 [Choosing practical 「coats」], 1977)는 오버코트와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리버서블 코트의 유행 그리고 중간 톤의 단순하고 실용적인 코트의 세련미를 다루며 소재의 고급화로 코트의 가격이 5~10만 원대로 비싼 가격에 책정되었다고 설명한다. 1977년 『한국일보』(홈웨어: 傳統스타일탈피 새霧圍氣로 新鮮한 매력을 [Home-wear: To change from the traditional style, fresh appeal made by the new atmosphere], 1977)는 홈웨어 패션 트렌드를 소개하며 집안에 손님을 맞을 때나 저녁 모임을 위해 실크블라우스에 벨벳 혹은 모직 롱스커트의 기존 홈웨어 착장과 더불어 나이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보면 신선한 멋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1979년 12월 『동아일보』(洋裝界의 세대교체: 노라노와 30세 웬디노 [Wastern women's wear call for a shift in generations: Nora Noh and 30 years old Wendy Noh], 1979)는 양장계의 세대교차 소식으로 노라노와 후계자 웬디노의 기사를 다룬다. 웬디노는 “韓國의 고급기성복이 30대 이후에게나 맞을 점잖은 디자인이 대부분이어서 밝고 명랑하고 젊은 옷이 드문 것 같다”며 자신은 “젊은이를 위한 옷에 중점을 두고싶다”고 밝히고 있다(洋裝界의 세대교체: 노라노와 30세 웬디노 [Wastern women's wear call for a shift in generations: Nora Noh and 30 years old Wendy Noh], 1979, p. 5).

4. 1980년대: 패션쇼 경향과 시스템의 변화

1981년 10월 『동아일보』(패션쇼 달라진다: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Changing fashion show: 「Clothes to see」 to 「clothes to wear」], 1981)는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패션쇼가 변화하고 있음을 기술한다. 신문은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정작입기에는 어색한 옷들이 선보여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패션쇼가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차차 일반소비자들에게 파고들고 있다”고 전한다(패션쇼 달라진다: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Changing fashion show: 「Clothes to see」 to 「clothes to wear」], 1981, p. 7).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일쇼크로 인한 미국시장의 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기업이 기성복 패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패션계에 실용주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진단한다(패션쇼 달라진다: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Changing fashion show: 「Clothes to see」 to 「clothes to wear」], 1981). 신문은 노라노 등 디자이너들의 패션쇼에서 그동안 이브닝드레스 라인이 강했고 실용 디자인도 실크와 같은 값비싼 소재로 제작되어 대중들과의 거리감이 있었음을 지적한다(패션쇼 달라진다: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Changing fashion show: 「Clothes to see」 to 「clothes to wear」], 1981). 또한 기업이 패션 사업에 뛰어들면서 패션쇼의 횟수가 늘어나 윤영실, 유혜영 등의 1급 모델들의 경우는 한 무대에 30만원을 받아 스타반열에 올랐다는 변화된 패션 시장의 환경을 걱정한다(패션쇼 달라진다: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Changing fashion show: 「Clothes to see」 to 「clothes to wear」], 1981). 더불어 일반 가정에서도 브랜드 의상을 선호하게 된 것이 달라진 풍토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가진 삼성측은 「남성기성복은 특히 패션쇼의 효과를 많이 본 품목」”이라고 설명한다(패션쇼 달라진

다: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Changing fashion show: 「Clothes to see」 to 「clothes to wear」], 1981, p. 7). 1981년 11월 『동아일보』(Noh, 1981)는 생활 환경에 맞는 옷으로 패션이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모델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1986년 5월 창간 1주년을 맞은 패션전문지 『월간 멋』(국내외 톱디자이너 63명의 대표 작품집 [The collected edition of the local and international top fashion designers 63], 1986)는 국내외 톱디자이너 63명의 대표 작품집을 부록으로 내어놓았고 한국 여류 명사와 인기인 40인의 단골 의상실을 소개하였다. 정부 역시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데 1988년 프랑스 일간지 『Le Monde』(<Haute-couture à Séoul>: L'espoir d'une médaille d'or [Haute counter in Seoul>: The hope of a gold medal], 1988)의 문화 코너에는 '오토 쿠티르 서울 (Haute-couture à Séoul)'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노라노, 최경자, 이신우, 신남숙, 이영희, 앙드레김의 양력과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1989년 『중앙일보』(토틀패션: 옷·구두·핸드백 한꺼번에 고른다 [Total fashion: One-stop shopping system for clothes, shoes and handbags], 1989)는 토털패션의 시대가 왔음을 조명한다. 기사는 "(株)노나가 FIT라는 코디네이션 슈즈를 내놓고 판매하고 있는가하면, 제화업체인 에스콰이어는 약 한달 전 서울 명동 트렌드매장을 신설해 의류부터 스카프 등 액세서리 일체를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토틀패션: 옷·구두·핸드백 한꺼번에 고른다 [Total fashion: One-stop shopping system for clothes, shoes and handbags], 1989). 또한 "지난 4일 서울명동에서 청담동으로 사옥을 옮긴 노라노도 기존의 여성복이외에 아동복·목걸이·귀걸이·스카프·구두·백·란제리·앞치마·벨트·쿠션·이불보 등을 새로 선보였다"고 달라진 패션시장의 동향을 전한다(토틀패션: 옷·구두·핸드백 한꺼번에 고

른다 [Total fashion: One-stop shopping system for clothes, shoes and handbags], 1989). 또한 (주)유림패션, (주)논노, 데코, 톱보이, 블랙팡, 크레송, 줄리앙 등과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트로아조, 오리지날리(이신우), 뽕팡(이용렬), 울티모(김동순)등이 토털패션으로 전환했고 프랑소아즈(진태옥) 역시 비정기적으로 스카프와 목걸이 등 액세서리류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고 소개한다(토틀패션: 옷·구두·핸드백 한꺼번에 고른다 [Total fashion: One-stop shopping system for clothes, shoes and handbags], 1989).

5. 1990년대: 새로운 패션 마켓의 등장

1990년대 『Dallas Apparel News』(It Looks like Spring, 1990)는 12년 동안 미국시장에서 성공을 이루며 자카드 실크 원피스로 인지도를 높인 노라노의 1990년 봄·여름 컬렉션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씨블루(sea blue), 에메랄드그린, 루비레드의 컬러가 추상적인 패턴과 조화를 이루어내어 디자인에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It Looks like Spring, 1990).

1990년대 말에는 IMF로 인한 어려운 상황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1990년대 노라노의 기사를 다루지 않던 주요 일간지는 1997년 말부터 미국 사업을 접고 귀국한 노라노가 시대 상황에 맞게 사업을 재편한다는 소식을 보도한다(양관점서과는 '브랜드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노라' E마트서 판매 ['Fashion brand' products sold at the super market, Mrs. Nora Noh's sub-brand 'Nora' sold at E mart], 1997; 시대마다 앞선 시도, 중저價로 다시 도전 [Try ahead of era, challenging again with mid-price], 1997; 할인점 전용브랜드 인기 [The popularity of the discount store exclusive brands], 1998a; 할인점 전용브랜드 인기 [The popularity of the discount store exclusive

brands], 1998b; Yoo, 1999). 1999년 9월 『경향신문』(Yoo, 1999)의 기사에서는 노라노가 시대를 읽어내며 ‘노라’ 브랜드를 론칭해 10만 원 이하의 재킷, 스커트의 기본제품을 만들어 대형슈퍼마켓 E-Mart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과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또한 이 시기 노라노 관련 기사에서는 중년의 멋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노라노 고객의 연령층이 올라간 것에 기인한다.

IV. 노라노 관련 매체분석을 통해 추출한 한국 근대 패션사적 사실

1. 선행연구 고찰

노라노 패션의 미국적 영향을 분석한 Hahn(2012)의 연구는 Choi(2009), Choi(2011)가 한국패션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시한 기준인 ‘기능성’과 ‘대중성’을 근거로 연구자가 노라노가 서양의 복 형식에 한국 원단을 사용한 점을 ‘융합성’으로 보아 기능성, 대중성, 융합성을 잣대로 노라노 패션의 미국적 속성을 브랜드의 발전 과정과 특성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11개 디자인의 예를 제시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매체 분석결과 노라노는 1957년 파리를 방문한 이후 첫 패션쇼부터 디오르와 발렌시아가 그리고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의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의 경영방식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Noh, 1957f;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March 27, 2017; 既成服展示會 [Exhibition of the ready-to-wear clothes], 1965; 實用과 藝術性を 강조하는 노라노 女史: 샤넬과 바랑시아가 마음의 선생 [Mrs. Nora Noh focused on practicality and artistry: Inspired by Chanel and Balenciaga], 1975). 노라노는 초창기부터 ‘상제리제’, ‘샤넬·넘버·화이트’ 등의

주제로 컬렉션을 개최하며 우리 원단에 프랑스의 세련미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작품의 이름을 ‘샤넬·재킷’으로 명명하는 등 프랑스 패션이 자신의 작품에 직접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한다(Noh, 1957f; Noh, 1957g; 既成服展示會 [Exhibition of the ready-to-wear clothes], 1965). 당시의 평론가들 역시 실용성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설명하고, 노라노의 디자인이 프랑스 하이패션 스타일을 기저로 하고 있으며 특히 노라노가 샤넬의 실용적 가치를 받아들여 1960년대부터 기성복 의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기술한다(既成服展示會 [Exhibition of the ready-to-wear clothes], 1965; 實用과 藝術性を 강조하는 노라노 女史: 샤넬과 바랑시아가 마음의 선생 [Mrs. Nora Noh focused on practicality and artistry: Inspired by Chanel and Balenciaga], 1975).

Park(2014a)과 Park(2014b)은 노라노 패션 발전 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패션의 주요사건들을 추출하고 디자이너의 패션쇼와 작품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Park(2014a)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신당동 ‘노라노 양장점’ 오픈 시점의 명확한 규명이 진행되지 않았다. 노라노는 2012년 ‘노라노 양장점’ 오픈 시기를 유학 직후인 1949년 말로 선행 연구에서 구술하였으나 이후 신당동 ‘노라노의 양장점’ 오픈 시기는 예림양행 자료에서 1950년으로 확인되었다(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May 26; November 29, 2014; Park 2012). Park(2014a)의 연구는 노라노가 학업을 끝내고 귀국 후 신당동 집 2층에서 미군 장교 부인 및 외교관의 의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1949년 말을 노라노 패션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나, 브랜드가 정식 출범한 시기가 1950년이므로 신당동 첫 매장 오픈 시기는 1950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행연구(Park, 2014a; Park, 2014b)에서 추출된 25회의 노라노 패션쇼 자료 중 세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Table 2). Park(2014a)과 Park(2014b)의 연구에서는 1956년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쇼가 11월 29일 만도호텔 그

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술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0월 29일 반도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 열렸다(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March 27, 2017; 韓國 近代文化의 뿌리: 패션쇼 [The root of Korean modern culture: Fashion show], 1981). 또한 선행연구(Park, 2014a; Park, 2014b)에서는 노라노가 1963년 미우만 백화점에서 최초의 ‘기성복 패션쇼’를 개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체자료 분석 결과 해당 패션쇼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근거로는 노라노의 제9회 패션쇼는 1962년 10월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제10회 패션쇼는 1963년 11월 1일 위커힐 호텔에서 열렸다는 『동아일보』(두곳서 『팻손·쇼』11월1일-2일 [『Fashion shows』 in two place 1-2 november], 1963) 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1963년 11월 위커힐 호텔 패션쇼가 최초의 디자이너 기성복 패션쇼이다. 더불어 선행연구(Park, 2012; Park, 2014a; Park, 2014b)에서는 1964년 화신백화점에서 ‘기성복 패션쇼’를 개최하였다고 기술되었으나 노라노는 2012년 구술채록집 검수와 추가 면담에서 해당 장소에서 한 번도 패션쇼를 개최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May 26; November 29, 2014; Park, 2012). 인쇄매체 자료에서 역시 1964년에는 조선폰텔 고별 패션쇼와 바자회 소식은 있었으나 화신백화점 패션쇼는 근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쉬프트』가 눈끌어 『노라노』서 『바자』 [『Shift』 catching attention in the 『bazaar』 of 『Nora Noh』], 1964). 심층면담 확인에서도 노라노는 1964년은 하와이 진출준비로 국내 패션쇼는 조선폰텔 쇼 이외에는 기획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November 29, 2014; March 27, 2017).

2. 매체분석 결과

매체분석 결과 선행연구(Park, 2014b)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된 3건의 패션쇼 오류를 제외한 22건의 패션쇼가 추출되었고, 본고에서는 추가로 3건의 새로운 노라노 패션쇼와 최초의 기성복 패션쇼 선정 근거인 디자이너 연합 패션쇼 1건이 조사되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추출된 패션쇼 중 기존 자료의 행사 일시 및 내용이 새롭게 확인된 것은 총 10건으로 그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다. 노라노 패션의 전성기인 1956년부터 1965년까지의 노라노의 파리 방문 기록은 기사에서는 두 차례가 언급되었다. 최초의 디자이너 기성복 패션쇼에 관한 자료는 1963년 11월 1일 오후 2시 위커힐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노라노 패션쇼로 밝혀졌다(두곳서 『팻손·쇼』11월1일-2일 [『Fashion shows』 in two place 1-2 november], 1963). 또한 하루 뒤인 11월 2일 오후 2시 30분 미도파백화점 5층에서도 대한복식협회의 연합 디자이너 기성복 패션쇼가 개최되었다(두곳서 『팻손·쇼』11월1일-2일 [『Fashion shows』 in two place 1-2 november], 1963). 1960년대 초 노라노가 국내 제품 제작 시스템의 일부를 기성복 체계로 채환한 이유는 파리의 트렌드가 기성복으로 전환되었음을 빠르게 읽어낸 것과 더불어 1964년 남편인 짐 힐클(Jim Finkle) 소령의 지원으로 하와이로 사업의 거점을 옮기면서 수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해외로 거점을 옮긴 노라노가 국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조선일보』(노라노여사 첫 「패션·쇼」: 하와이의 「로이얼·호텔」서 51점 전시 [Mrs. Nora Noh, the first 「fashion show」: 51 works exhibited at the 「Royal hotel」 in Hawaii], 1965)와 『경향신문』(太平洋 오가는 노라노 洋裝 [Traveling across the pacific: Nora Noh fashion], 1965) 기사에 따르면 노라노는 하와이 제품에도 한국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디자인을 주문 받은 이후 패턴을 제작해 서울로 보냈고 단추와 지퍼 등 부자재를 제외한 완봉 상태로 제품을 받아 현지에서 디자인을 마무리하

Table 2.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출된 패션쇼 오류 및 추가 행사 내용.

년도	선행연구 자료 일부	오류 및 추가 사항	수정 및 추가 정보 세부 내용	근거
1956	F/W 『제1회 패션쇼』, 2pm, 반도호텔	장소 및 행사 일정 오류	10월 29일 오후 2시, 다이너스티 룸	-동아일보, 『한국 근대문화의 뿌리, 패션쇼』, 1981년 1월 10일
1957	S/S 『반도호텔 옥상 야외무대 패션쇼』	행사 일정 및 내용 추가	1957년 6월 9일, 제2회 패션쇼, 50점	-대한뉴스, 6월 10일 제117호
	F/W 『조선호텔 패션쇼』	행사 일시 및 장소 추가	12월 16일 하오 3시, 볼룸	-조선일보, 12월 15일 -동아일보
1962	『제9회 노라노 햇선쇼』, 3. 31. 2 pm, 그랜드호텔 7층	내용 추가	51점 발표, 400여명 관람	-동아일보, 4월 4일
1963	-	오류	개최되지 않음	-동아일보, 10월 29일
	-	행사 추가	노라노햇선 제10회 기념 「햇선·쇼」, 1963년 11월 1일 하오 2시, 「위커힐·크로바·클럽」, 90점(1부 기성복 60점: 2부 작품 30점)	-동아일보, 10월 29일
	-	디자이너 연합 패션쇼 행사 추가	대한복식협회 주최 기성복 「햇선·쇼」, 1963년 11월 2일 하오 2시 30분, 미도파백화점 5층, 70점(남성복 포함)	-동아일보, 10월 29일
1964	-	행사 오류	개최되지 않음	-디자이너 구술 채록 검증
	-	행사 추가	6월 18일부터 노라노 바자회 개최, 50점	-동아일보, 6월 23일
	『노라노 고별 패션쇼』, 10. 23. 3:00 pm 조선호텔	내용 추가	48점, 방모사를 사용한 수트와 코트, 샤넬 슈트 주력 상품	-동아일보, 10월 29일
1965	『하와이 Fashion Show』, Royal Hawaiian Hotel	행사 일시 및 내용 추가	5월 22일, 패션쇼 제목: 「노라노 韓國·하와이 1965」, 최초의 해외 패션쇼	-조선일보, 5월 30일
	-	내용 추가	1965년 「노라노의 집」 기성복 전시회, 디자이너 샤넬의 영향 (예: 샤넬 재킷)	-동아일보, 1965년 2월 25일
1967	-	행사 및 내용 추가	1967년 「노라노 既成服 패션쇼」, 미군장교클럽 1월 10일 1시pm, 30점 주최: 주한 미8군 장교부인클럽	-신문사 확인 불가, 1월 7일
1973	가을 파리『프레타 포르테 박람회』, 10. 21 - 25. 포르트 베르사유	내용 추가	노라노: 70점 250벌 수주 姜貴姬: 100여벌 수주 개별디자인 도매가격: \$50 ~ 80 소매가격: \$180~300	-중앙일보, 10월 18일
1974	『건직물 바이어 패션쇼』, 10. New York Plaza Hotel	내용 추가	「헨리·벤들」등에서 총 4천 4백 76만 달러 수주	-동아일보, 1974, 발행일자 확인 불가
	F/W 『현대백화점 패션쇼』, 현대백화점 본점 노라노의 집 오픈기념	내용 추가	후계자 웬디노 지명	-동아일보, 10월 발행일자 확인 불가: 패션쇼 리플렛

Adopted from Park, (2014b). pp. 94-95.

였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 노라노는 제주도 한림수직의 울지지와 트위드 원단을 주로 사용하였다(太平洋 오가는 노라노 洋裝 [Traveling across the

pacific: Nora Noh fashion], 1965). 1973년 10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참가한 ‘포르트·베르사유’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에는 노라노 이외에도

디자이너 강귀희도 참가했으며 강 디자이너 역시 100여벌 1만 8천 달러 상당을 수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파리」의 既成服「쇼」에 참가하는 노라노씨 [Mrs. Nora Noh attend the ready-to-wear clothes 「exhibition」 in 「Paris」], 1973). 또한 정부는 박람회에서 한국 실크와 디자이너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확인 한 후 잠사협회 그리고 당시 미국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수주를 받은 노라노와 협업하여 1974년 11월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건직물 바이어 패션쇼를 기획하였다. 더불어 노라노 이외에도 박윤정(朴允貞)과 카렌림(카렌林)이 미국 기성복 시장에 진출하였다(새봄의「블라우스」 [New spring's 「blouse」], 1977).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디자이너 노라노 소장 인쇄 매체 자료와 연구자 수집 노라노 관련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 패션과 한국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고찰하는데 있었다. 본고는 두 편의 연결 논문 중 두 번째 논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에서 보이는 디자이너 노라노의 국내 전성기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으로 이 시기 노라노는 한국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미국 활동 기인 1980년대 이후는 국내 매체노출이 극감하여 수출에만 주력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노라노 소장 자료 역시 해외 매체자료가 주류를 이루었다. 1950년대는 이전 시대와 다르게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주도로 트렌드가 구축된 적극적 탈 전통화 시기로 매체들은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소식과 더불어 디자인의 요소, 아이템, 스타일 등의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1960년대는 노라노의 국내 마켓 전성기로 패션쇼, 기성복 론칭, 트렌드, 제1

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국산 원단 사용에 관한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대는 정부가 섬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시기로 정부의 디자이너 해외 진출 지원, 기성복 수출 실적, 실용적인 스타일로 변화된 패션 트렌드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와 상업 브랜드의 기성복 시장 정착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1970년대는 노라노의 행보를 통해 정부의 미국 섬유 수출지원 과정 및 디자이너 유럽 진출 지원 등의 패션 산업 방향과 정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미국 활동기로 노라노의 국내 기사가 급감한 1980년대는 패션쇼의 시스템, 토탈 패션화 현상 등을 지향하는 해외 패션 시장 시스템의 국내 유입에 관한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는 디자이너의 세대 교체 바람, 패션 마켓의 다각화에 관한 기사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선행연구(Hahn, 2012; Park, 2014a; Park, 2014b)에서는 노라노의 첫 디자이너 부딪인 ‘노라노의 집’의 오픈 시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49년 말 신당동 자택에서 진행된 ‘디자인 작업 시작기’와 전쟁 전과 후의 ‘신당동 양장점 기(1950년)’, ‘충무로 양장점 기(1952년)’ 그리고 ‘명동 양장점 기(1955년)’의 시작 시점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생긴 혼선으로 보인다. 자료 조사 결과 노라노가 신당동 ‘노라노의 집’을 정식으로 오픈한 시기는 1950년이였다. 또한 선행연구(Hahn, 2012)의 결과와 다르게 노라노의 실용성은 교육 배경인 미국의 실용성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노라노는 프랑스 패션 시스템의 기성복 전환 과정 탐구를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성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곧 노라노는 프랑스와 미국 패션 시스템 모두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소재를 사용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절충적 스타일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Park, 2014a; Park, 2014b)에서 조사된 패션쇼 중 1956년 최초의 패션쇼는 장소 및 일시에

오류가 있었고, 1963년 미우만 백화점과 1964년 화신백화점 패션쇼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고에서는 4회의 패션쇼가 추가적으로 조사되었으며, 10회의 패션쇼 일시와 세부 내용이 추가적으로 추출되었다. 연구 결과 최초의 기성복 패션쇼는 1963년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워커힌 크로바 클럽 패션쇼로 밝혀졌다. 또한 1965년 노라노의 하와이 진출에는 남편인 짐 헝클 소령의 조력이 있었고, 미국의 주문품은 국내에서 부자재를 제외한 기초 공정을 완성해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고 트리밍과 지퍼 등은 현지에서 마무리해 기성복과 맞춤복의 절충적 형식을 도입한 것이 ‘하우스 오브 노라노’의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체자료에 실린 노라노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발렌시아가, 디오르, 샤넬, 그리고 리치의 영향을 받았고, 1970년대는 생 로랑과 쿠레주의 영향을 받았다.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는 발렌시아가로 밝히고 있으나 디자인은 디오르의 라인시대의 작품과 샤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브랜드의 기성복 전환 시스템 수용은 샤넬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노라노는 1956년 11월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쇼를 개최한 이후 10여 년 동안 한국 패션의 트렌드를 직접 주도한 제1세대 패션디자이너이다. 특히 노라노는 1950년대부터 신문에 패션 기사를 기고하여 해외 패션의 트렌드를 대중에게 전파하는데 일조했고, 파리의 트렌드를 우리 원단을 사용한 작품에 녹여 내며 암울한 시대에 세련된 스타일의 멋을 알린 한국 패션의 선구자이다. 또한 1970년대는 대한방직협회, 대한잡사협회, 그리고 대한무역진흥공사와의 공조를 통해 국산 재료를 사용한 디자인 개발을 산업계와 함께 모색하였고 이를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 노라노는 시대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미국 시장 진입에 성공하며 한국 패션의 가능

성을 세계에 알린 최초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비록 개인적인 행보가 두드러져서 당대의 디자이너들과의 교류가 약하고 양성한 후학이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노라노가 한국 근·현대 패션사에 족적을 남긴 제1세대 디자이너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Reference

- Charity Show for Troupe. (1969, June 4). *The Korea Times*, p. not found.
- Choi, S. A. (2009). *Americanization and de-Americanization of Korean fashion since 19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S. A. (2011). The traits of americanization in modern Korea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3), 1-19.
- Choi, Y. S. (1969, December 25). 나의 단골집 明洞노라노 [My fabric fashion boutique Nora Noh]. *Maeil Business News Korea*, p. 8.
- Hahn, S. Y. (2012). Americanization expressed in Korean fashion: Focused on 1950s~1980s Nara Noh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4(3), 195-204.
- <Haute-couture à Séoul>: L'espoir d'une médaille d'or [Haute counter in Seoul]: The hope of a gold medal]. (1988, September 3). *Le Monde*, p. not found.
- It Looks like Spring. (1990, October). *Dallas Apparel News*, p. not found.
- Noh, N. (1957a, August 22). 洋裝과 속옷 [Western women's wear and underwear]. *Chosun Ilbo*, p. 4.
- Noh, N. (1957b, August 30). 구두와 악세서리 [Shoes and accessory]. *Chosun Ilbo*, p. 4.
- Noh, N. (1957c, September 5). 衣裳과 香水 [Clothes and perfume]. *Chosun Ilbo*, p. 4.
- Noh, N. (1957d, September 12). 洋裝과 「포즈」 [Western clothes and 「pose」]. *Chosun Ilbo*, p. 4.
- Noh, N. (1957e, September 26). 洋裝과 線 [Western women's wear and line]. *Chosun Ilbo*, p. 4.
- Noh, N. (1957f, October 3). 流行에 대해서 [About trend]. *Chosun Ilbo*, p. 4.
- Noh, N. (1957g, October 18). 가을과 「스쓰」 [Autumn and 「suit」]. *Chosun Ilbo*, p. 4.
- Noh, N. (1957h, October 24). 毛皮 [Fur]. *Chosun Ilbo*, p. 4.
- Noh, N. (1957i, October 31). 넥타이와 스카프 [Tie and scarf]. *Chosun Ilbo*, p. 4.

- Noh, N. (1957j, November 7). 「색과 시루엘」 [「Color and silhouette」]. *Chosun Ilbo*, p. 4.
- Noh, N. (1957k, November 14). 후렐바스트의美 [The beauty of the flat bust]. *Chosun Ilbo*, p. 4.
- Noh, N. (1957l, November 28). 새로운 메이크업 [The new makeup]. *Chosun Ilbo*, p. 4.
- Noh, N. (1957m, December 12). 마네킹의예술성 [The artistry of mannequin]. *Chosun Ilbo*, p. 4.
- Noh, N. (1981, November 27). 바람직한 우리의 패션: 生活環境에 맞는 옷을... [Desirable Korean fashion: Clothes suitable for living environment...]. *Dong-a Ilbo*, p. 7.
- Park, S. M. (2012). *Nora Noh 1928-2012 Korean modern art history: Research of the oral statement series vol. 224*. Seoul: The Korean National Archives of Arts.
- Park, S. M. (2014a). An observation on mid to late twentieth century Korean fashion: Focus o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Nora No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4), 52-75. doi:10.7233/jksc.2014.64.4.052
- Park, S. M. (2014b). A study o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Nora Noh: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a Noh's fashion shows and designs from the 1950s to the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2), 89-109.
- Park, S. M. (2016). A study on Nora Noh fashion and Korean modern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4), 89-107. doi:10.18652/2016.16.4.6
- Pure Silk for Spring-Price is Right. (1974, October 31). *Chicago Daily News*, p. not found.
- The Fabrics: THE REAL THING. (1974, December 7). *Women's Wear Daily*, p. 22.
- Yoo, I. K. (1999, September 6). 노라노 좋은 옷 만들기 50년 제1세대 패션디자이너 '고급 옷' 거품 빼는 '한국 의 샤넬' [Nora Noh 50 years of making good clothes, the first generation of the Korean fashion designer, 'Chanel in Korea' reduced the bubble of 'high fashion']. *Kyunghyang Shinmun*, p. 7.
- 겨울을 위한 패션·쇼: 노라노여사 10회전 [Fashion show for winter: 10th Nora Noh fashion show]. (1963, November 5). *Kyungyang Shinmun*, p. 5.
- 고급 既成服 [High quality ready-to-wear clothes]. (1973, November 16). *Chosun Ilbo*, p. not found.
- 국내외 톱디자이너 63명의 대표 작품집 [The collected edition of the local and international top fashion designers 63]. (1986, May). *윌란 댓*, p. not found.
- 기성복의 보급 [Supply of the ready-to-wear clothes]. (1966, June 9). *Kyunghyang Shinmun*, p. not found.
- 깔끔한「멋」풍겨: 노라노「패션·쇼」 [Simple and 「fashionable」: Nora Noh 「fashion show」]. (1962, April 4). *Dong-A Ilbo*, p. 4.
- <나이에관계없이 젊게입을 수 있는 실크원피스기성복 (노라노의 집에서)> [To wear regardless of age, ready-to-wear silk dresses(from house of Nora Noh)>]. (1967, April 13). *Dong-A Ilbo*, p. 6.
- 노라노여사 첫 「패션·쇼」: 하와이의 「로이얼·호텔」서 51점 전시 [Mrs. Nora Noh, the first 「fashion show」: 51 works exhibited at the 「Royal hotel」 in Hawaii]. (1965, May 30). *Chosun Ilbo*, p. 5.
- 노라노 패션·쇼: 국산지 신작으로 성황 [Nora Noh Fashion Show: Great success using Korean materials]. (1959, April 4). *Kyunghyang Shinmun*, p. 4.
- 노女史 패션·쇼 [The fashion show of Mrs. Noh]. (1957, December 15). *Chosun Ilbo*, p. 4.
- 「뉴·모드」로 「코라지」調 [「The new fashion trend」 「Courrèges」]. (1966, October 30). *Not found newspaper*, p. not found.
- 「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 [The three elements of 「designing」]. (1957, May 12). *Kyunghyang Shinmun*, p. 4.
- 두곳서 「패션·쇼」 11월1日-2日 [「Fashion shows」 in two place 1-2 november]. (1963, October 29). *Dong-A Ilbo*, p. 6.
- 「레디·메이드」를 시작: 歡迎받았으나 成敗는 아직 [The start of 「ready made」: Received a welcome but has not succeeded yet]. (1963, December 18). *Dong-A Ilbo*, p. 6.
- 반도호텔에서 개최된 2차 노라노 패션·쇼 [The second Nora Noh fashion show held at Bando hotel]. (1957, June 16). *Kyunghyang Shinmun*, p. 4.
- 보기에도 따뜻한 「자켓·수츠」 [Warm to see 「jacket·suit」]. (1964, October 29). *Dong-A Ilbo*, p. 6.
- 새로운 스타일 [The new style]. (1957, June 10). *Daehan News*. Retrieved November 30, 2015, from http://film.ktv.go.kr/page/pop/movie_pop.jsp?srcgbn=KV&mediaid=104&mediadt=670
- 새로운 여름철 衣裳: 노라노 夏季 패션·쇼 盛況 [New summer clothes: Prosperity of Nora Noh S/S fashion show]. (1957, June 13). *Chosun Ilbo*, p. 4.
- 새봄의「블라우스」 [New spring's 「blouse」]. (1977, March 23). *Joongang Ilbo*, p. not found.
- 세계의 새 流行 「코라지·라인」 [The new global trend 「Courrèges line」]. (1966, September 3). *Seoul Shinmun*, p. not found.
- 세계의 庶民, 디자이너 [The ordinary people of the world, designer]. (1971, March 3). *Dong-A Ilbo*, p. 6.
- 「쉬프트」가 눈끌어 「노라노」서 「바자」 [「Shift」 catching attention in the 「bazaar」 of 「Nora Noh」]. (1964, June 23). *Dong-A Ilbo*, p. 6.
- 스포티한차림유행 [The trend is a sporty fashion]. (1974, April 13). *Maeil Business News Korea*, p. 6.
- 시대마다 앞선 시도, 중저價로 다시 도전 [Try ahead of era, challenging again with mid-price]. (1997, December 4). *Joongang Ilbo*, p. not found.
- 실크 對美輸出길 연 노라노 女史 [Mrs. Nora Noh exported silk to USA]. (1974). *Dong-A Ilbo*, p. not found.
- 양장: 실용복 스텍스 [Western women's wear: Practical slacks]. (1960, January 17). *Dong-A Ilbo*, p. not found.

양장: 『카라』 없는 초가를 『원피스』 [Western women's wear: Early autumn 'dress' without 'collar']. (1960, August 20). *Dong-A Ilbo*, p. 4.

양관점서파는 '브랜드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노라' E 마트서 판매 ['Fashion brand' products sold at the super market, Mrs. Nora Noh's sub-brand 'Nora' sold at E mart]. (1997, December 1). *Kyunghyang Shinmun*, p. 16.

여성 既成服展 [The exhibition of women's ready-to-wear clothes]. (1973, November 15). *Joongang Ilbo*, p. not found.

올봄, 주니어·모드 [The spring, junior fashion]. (1974). *Chousun Ilbo*, p. not found.

올봄의 의상: 입던 옷에 새素材결들여... [The clothes for spring: Putting new materials on current clothes...]. (1976, February 10). *Dong-A Ilbo*, p. not found.

올여름 비옷모드: 통넓은 소매 늘어진어깨 [This summer's raincoat fashion: Wide sleeves, loose shoulders]. (1976, June 17). *Hankook Ilbo*, p. not found.

자선패션바자 창작극기금모집 [Bazaar of the charity fashion show fund raising of the creative drama]. (1971, June 28). *Dong-A Ilbo*, p. 6.

토틀패션: 옷·구두·핸드백 한꺼번에 고른다 [Total fashion: One-stop shopping system for clothes, shoes and handbags]. (1989, November 8). *Joongang Ilbo*, p. not found.

「파리」의 既成服「쇼」에 참가하는 노라·노 씨 [Mrs. Nora Noh attend the ready-to-wear clothes 'exhibition' in 'Paris']. (1973, October 18). *Joongang Ilbo*, p. not found.

「파리」의 既成服展 [Ready-to-wear clothes exhibition in 'Paris']. (1973, April). *Not found newspaper*, p. not found.

패션쇼 달라진다: 「바라보는 옷」에서 「입는 옷」으로 [Changing fashion show: 'Clothes to see' to 'clothes to wear']. (1981, October 26). *Dong-A Ilbo*, p. 7.

패션 50년, 「노라노패션쇼」 [Fashion 50 years: 'Nora Noh fashion show']. (1995, March 15). *Kyunghyang Shinmun*, p. not found.

한국패션 반세기: 마카오신사가 첨단패션 갖춘 멋쟁이 [The half a century of Korean fashion: Gentleman Makao, the trend reader and dandy]. (1995, January 4). *Korea Textile Economic News*, p. 11.

할인점 전용브랜드 인기 [The popularity of the discount store exclusive brands]. (1998a, February 3). *Maeil Business News Korea*, p. 14.

할인점 전용브랜드 인기 [The popularity of the discount store exclusive brands]. (1998b, February 4). *Hankook Ilbo*, p. 22.

홈웨어: 傳統스타일탈피 새雰圍氣로 新鮮한 매력을 [Home-wear: To change from the traditional style, fresh appeal made by the new atmosphere]. (1977, December 17). *Hankook Ilbo*, p. not found.

家庭: 봄철의 양장 [Home: western women's wear for spring]. (1960, March 10). *Dong-A Ilbo*, p. 4.

家庭: 색깔, 감, 디자인 [Home: color, fabric, design].

(1960, June 18). *Dong-A Ilbo*, p. 4.

經濟的이면서도 깔끔한 옷차림, 마춤옷보다 實用的이고 견고한 既成服선택 싫증나지않는 平凡한 옷으로 多樣性살려야 [Economical simple clothes, choosing practical and solid ready-to-wear clothes, over custom-made clothes, attracting the public with clothing that does not get old]. (1974, February 16). *Dong-A Ilbo*, p. not found.

既成服展示會 [Exhibition of the ready-to-wear clothes]. (1965, February 25). *Dong-A Ilbo*, p. 6.

大衆에 定着한 歐美 「패션」: 「노라·노女史」가 말하는 파리의 流行 [European 'fashion' settled in the public: The trend of parisian fashion spoken by 'Nora Noh']. (1971, February 26). *Joongang Ilbo*, p. not found.

鮮京서도 美에 실크製品 [Silk products exported to USA by Seonkyung]. (1977, February 1). *貿易通信*, p. 3.

世界를 휩쓰는 實用主義, 모드는 個性주의로 [Pragmatism that sweeps the world but the trend of fashion is individuality]. (1973, November 18). *Dong-A Ilbo*, p. 8.

實用과 藝術性을 강조하는 노라노 女史: 샤넬과 바랑시아가 마음의 선생 [Mrs. Nora Noh focused on practicality and artistry: Inspired by Chanel and Balenciaga]. (1975, January 23). *Maeil Business News Korea*, p. 6.

實用的인 「코트」 고르기 [Choosing practical 'coats']. (1977, November 17). *Joongang Ilbo*, p. 3.

洋裝界의 세대교체: 노라노와 30세 웬디노 [Western women's wear call for a shift in generations: Nora Noh and 30 years old Wendy Noh]. (1979, December). *Dong-A Ilbo*, p. 5.

洋裝店털기16回 [Rob the fashion boutiques sixteen times]. (1961, April 15). *Kyunghyang Shinmun*, p. not found.

展望 어두운 女性服輸出 [Exporting opaque women's wear]. (1970, May 13). *Hankook Ilbo*, p. not found.

探索한창 하이패션 輸出: 保稅加工탈피, 「디자인」 搜出로 高價化 [Searching high fashion export: To get out of the bonding process, to approach advanced 'design' export]. (1977, May 2). *Joongang Ilbo*, p. 6.

太平洋 오가는 노라노 洋裝 [Traveling across the pacific: Nora Noh fashion]. (1965, June 9). *Kyunghyang Shinmun*, p. 6.

韓國 近代文化의 뿌리: 패션쇼 [The root of Korean modern culture: Fashion show]. (1981, February 10). *Dong-A Ilbo*, p. 10.

韓國의 디올·올레·모드의女王日本を語る。[Dior in Korea-queen of the mode, speak Japan]. (1972, July 2). *ナイガイスポーツ*, p. not found.

海外販路 넓히는 한국 여성 기성복 [Korean women's ready-to-wear fashion to expand overseas]. (1973, November 6). *Not found newspaper*, p. not found.

A Study on Nora Noh Fashion and Korean Modern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2)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Media Related to Nora Noh between the 1950's
and 1990's -**

Park, Shin Mi⁺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odern phenomenon of Korean woman's fashion focusing on the designer Nora Noh through media materials from the 1950s to the 1990s. The research is divided into two parts and this paper is the second section, the research (2). The part of the research materials was possessed by Nora Noh and researcher also collected materials from the Presseum(museum of newspaper)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 The first paper, the research (1) was to examine the post-traditional phenomenon of Korean modern fashion and analyse the movie costumes of Nora Noh from 1955 to 1966. The result was that the images of the movie stars were the bridges of the western fashion style into the public and became the key trend of Korean modern fashion in the mid twentieth centur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2) show that Nora Noh was affected both by the French haute-couture and pret-a-porte system as well as American ready to wear system. The eclectic style is a characteristic of Nora Noh fashion. The ready to wear fashion show held at the Miuman department store in 1963 and the Hwashin department store in 1964 has not founded through the references. The 10th Nora Noh fashion show in Wakerhill at 2 pm, 1st of November, 1963 is the first ready to wear fashion show in the history of Korean fashion designer. Also, Nora Noh opened the first boutique at Sindang-dong in 1950 but the designer started design work in 1949 after she returned from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Korean modern fashion history, Nora Noh, post-traditional,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the mid to late twentieth century

